환경관리인과 환경공무원 퇴직자의 재활용
-환경평가사 1,2급 제정에 관련해-

연합회장 이상호

불철주야 환경보전과 환경개선에 여념이 없는 환경관리인 그리고 환경공무원 여러분!

환경관리의 기본은 사전예방과 재활용일 것입니다.

사전예방은 아직까지 이상적인 부분이 많으므로 재활용과 재이용이 좀더 현실적입니다. 여기에서도 소프트웨어의 재활용보다는 하드웨어(hardware)와 휴먼웨어(humanware)의 재활용에 관심을 둘 필요가 있습니다.

하드웨어의 재활용은 국민의식의 확대와 관련법의 제정으로 잘되고 있으나 인간의 능력인 즉 휴먼웨어의 재활용은 적어도 환경분야에서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듯 합니다.

재활용이 경제를 살리는 중요한 일이긴 하지만 사람의 재활용을 간과한다면 필연적으로는 실패입니다. 우리나라의 휴먼웨어 재활용은 극히 미비한 수준이며 선진국에 비해서는 크게 낙후되어 있습니다. 환경공무원으로 20여년간 일한 후에 장관이나 1,2급으로 퇴직하지 않는 한 대부분은 몇달 지나지 않아 '폐기처분' 됩니다. 20여년간의 전문지식을 묻고, 환경지식과는 상관없는 쓰레기 줍는 일이나 해야 할 실정입니다.

환경공무원뿐만 아닙니다. 환경관리인으로 20여년 일한 후에 퇴직해 보십시오. 회사문을 나서자마자 환경기사와 산업기사자격은 쓸곳이 없습니다. 그들이 청춘을 바쳐 축적한 환경지식은 쓰레기통에 폐기처분해야 합니다. 기사와 산업기사 자격증은 오직 남에게 고용될 때만 써먹을 수 있습니다. 프리랜서로 일하는 데도, 백수가 되었을 때에도 크게 쓸모가 없습니다. 자기가 스스로 고용하는 프리에이전트로서의 활동에도 필요없는 자격증입니다.

그래도 때때로 휴먼웨어를 재활용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주로 환경부 장관인데, 장관재직시 쓰레기줍기 사진을 부지런히 찍어둔 결과물들은 10년이 지나도, 15여년 후에도 신문, TV, 라디오, 잡지 등 전환경부장관이라는 타이틀과 함께 활동상황 등으로 재활용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죽은 후의 부고장에도 재활용되고, 자손대대로 제사상 머리에 "---환경부장관 신위"라는 것으로 활용되기도 합니다.

이렇듯 환경부장관을 지낸 자료들은 살아서도, 죽어서도 환경인으로 재활용되고 있지만 일반 환경관련 공무원 및 관리인들은 살아서 마저도 재활용되지 못합니다. 대부분 그들은 퇴직 후 1년도 지나지 않아 과거의 환경인이었음을 은폐하고 맙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환경부 장관님! 이토록 국가적, 사회적, 개인적, 인류적 손실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함께 재활용하는 길을 모색해 보시지는 않을런지요?

밑에서 묵묵히 일하는 환경관리인과 공무원들의 휴먼웨어

재활용에 조금이나마 관심을 가져주시고, 자신들만의 재활용에 급급한 인간적 이기심에 더러는 마음 아파해 주십시오.

환경인, 공무원여러분! 여러분은 환경보전과 환경개선을 위해 젊음을 바쳐 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먼저 퇴직한 선배들의 장래에도 관심을 가졌으면 합니다. 그들의 미래가 곧 나의 희망이자 결과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길이 있을까요?

이들의 전문지식을 재활용 하려면 퇴직 후에도 그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일하도록 하는 것 뿐입니다. 이것도 21세기 환경의 지향점인 '지속가능한 개발'의 일환입니다. 20여년만에 퇴직하면, 50줄에 접어든 나이로서는 이미 고용되기에는 불가능해, 자신의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스스로를 고용하는 프리에이전트(free agent)가 되어야 합니다.

다른 분야에서는 20여년 일하고 나면, 프리에이전트가 되는 길이 법적으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유독히도 환경분야에만 없습니다. 세무사, 관세사, 무역사, 행정사, 법무사, 변리사, 건축사 등이 모두 그러하고, 관련법규로 그들의 전문지식을 살리며 사회에 봉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환경분야도 전공지식 측면에서는 결코 위와 같은 직종에 비해 뒤지지 않습니다.

오늘의 환경분야는 기존의 환경기사(수질, 대기, 폐기물, 소음진동) 외에도 '환경영향평가사'와 '토양환경평가사' 및 '실내환경관리사'를 필요로 합니다. 환경정책과 환경기획을 제시하는 가장 높은 단계의 "환경평가사", 환경법무를 대행하는 "환경법무사", 환경행정을 대행하는 "환경행정사", 환경정보와 환경거래를 중개하는 "환경중개사"까지 다양한 분야의 전문인이 필요한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여기에서는 환경법무, 환경행정 및 환경중개를 총괄하는 "환경사"로 집약 될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인 환경업무를 담당하는 사람들은 어디에도 문의할 곳이 마땅치않고 자기의 업무처리를 대행케 할 곳도 없습니다. 현직의 환경공무원과 환경관리인은 자신의 업무만 처리하지, 대행업무는 할 수도 없습니다. 환경 문외한의 일반인들은 도대체 어찌해야 합니까? 환경관리인과 환경공무원 퇴직자에게 업무를 대행시키는 것은, 건축사법이나 중개사법 등을 위반하도록 강요하는 범법행위입니다.

환경 인적자원의 재활용은 이미 환경부의 연구과제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기사급의 환경평가사2급(환경영향평가사)과 기술사급의 환경평가사1급(공인환경평가사)이 그것입니다. 환경부의 계획대로 2002년도에 환경평가사를 시행하되 유휴인력 재활용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건축사급의 환경평가사와 행정사급의 환경사는 민관용의 업무대행을 하여야 하므로, 면허를 소지해야 합니다. 면허소지는 관련법으로 가능하니 "환경평가사 및 환경사법"이 제정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퇴직하는 모든 환경인과 공무원들은 필요한 만큼의 시험과목을 면제받은 후 응시하여 그 면허를 소지할 수 있고, 환경분야의 인적재활용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게 웬 일입니까? 최근 노동부의 입법예고를 보면, 환경평가사1급을 기술사급으로 하고, 2급을 기사급으로 하여 시행하겠다고 합니다. 기술사1급과 2급인지, 기사1급과 2급인지도 구별되지 않습니다. 1급이 기술사급이고 2급이 기사급이면, 하향평준화의 원리에 의해 당연히 기사1급과 2급이 되어버립니다. 기술사와 기능장 및 박사에는 1급, 2급이 없습니다. 물론 세무사, 변리사, 행정사, 중개사 등에도 1급, 2급은 없습니다. 참으로 현실을 파악하지 못한 발상이라고 봅니다. 연합회는 유휴인적 자원 재활용에 대해 수차례 관계부처에 건의했지만 협조가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관계자는 하루속히 이에 대한 재검토와 유휴인적자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며, 환경인 역시 미래를 위한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하겠습니다.